

轉換期 社會의 集團事態 解消方案

전 병 재

目

次

- I. 集團事態를 보는 批判的 視覺
- II. 學生運動에 관한 既存 理論들
- III. 韓國의 學生運動

- IV. 勤勞者들의 集團事態
- V. 集團事態의 原因論的 解消方案
- VI. 集團事態의 對應的 解消方案

I. 集團事態를 보는 批判的 視覺

集團事態(mass phenomena), 또는 集合行動(collective behavior)은 폭동, 광란, 린치(lynching), 유언비어, 恐慌, 革命, 流行 등 非制度的이고 非正常的인 집단적 행동들을 지칭하는 概念인데 그 대부분이 社會의 既存制度의 틀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既存秩序를 威脅하는 사태라는 理由때문에 특별한 관심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러한 集團事態에 관한 學問的인 관심의 시작은 <르봉>의 [群衆心理]라는 책이 發刊된 1895年으로 잡는 것이 常例이다. <르봉>에 의하면 群衆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集合體이지만 그 속의 個人들의 個性이나 趣向은 사라지고 집단성원 전체의 感性和 思考를 劃一的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독특한 共同心理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 延世大學校 社會學科教授

이러한 共同心理 속에서는 個個人的 知的인 能力은 감퇴되고 무의식적이고 本能的인 性格이 우세하게 되어 衝動性, 興奮性, 論理的 思考의 無能力, 判斷力의 결여, 感性의 과장등의 特性을 갖는 集團이 協成되는 것으로 그는 보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로 이루어진 集團보다는 個人的 슬기가 더 높다’ <볼테르> 라고 말 할 정도로 集團事態에 매우 강한 否定的인 見解를 들어내고 있다. 集團 事態에 대한 이러한 否定的인 見解는 <프로이트>, <질멜>, <로쓰> 등의 學者들에 의해서도 강하게 披瀝되고 있다. 이들은 다 같이 既存의 社會秩序를 威脅하는 衝動的이고 非合理的이고 破壞的인 集團事態는 效果적인 통제의 對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既存의 社會制度나 社會秩序가 社會성원들의 正當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는 경우에는 既存의 制度和 질서를 부너뜨리고 새로운 制度和 秩序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非制度的인 社會운동이나 集團事態는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現象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맑스, 앙겔스>를 비롯한 共產主義者들이나 급진주의 사상가들은 既存體制를 打破하기 위한 革命을 비롯한 일체의 파괴적 集團事態를 역사창조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또 <트렌느>와 같은 현대 社會運動 연구가들도 社會運動과 같은 非制度的인 집단사태를 社會變革과 역사창조의 유용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集團事態에 대한 價値指向的인 시각과는 달리, 집단사태를 아무런 편견도 없이 단순히 客觀的인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는 시각도 있다.

<베버>는 社會變革期에 등장하는 카리스마적 正當性이 일상화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固着되고 난 후에 社會성원들의 變化된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면 그 社會는 새로운 카리스마적 存在의 君臨을 바라게 되고 비제도적인 集團事態를 용인하거나 열망하는 狀態로 發展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파크>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 갈등 당사자들에 의해서 어떤 形態로 暫定的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계도가 되면 그러한 制度的 秩序속에서 사회적 평온이 유지되다가 새로운 葛藤要因들이 強化되어 사회적 葛藤狀況이 전개될 때에, 그러한 갈등이 既存의 제도적 틀속에서 效果的으로 解消되지 못하면 다시 비제도적 集團事態를 통해서 새로운 타협을 모색하게 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들은 制度的 질서의 狀態와 비제도적 集

團事態의 교차를 자연스러운 現象으로 보고 있다.

集團事態에 대한 이러한 客觀主義的이고 自然主義的인 접근방법은 保守主義的이거나 急進主義的인 입장에 서서 集團事態를 무조건 否定的으로 보거나 肯定的으로 보는 편과적인 視覺에 비해서는 事態를 客觀的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科學主義的 視角은 집단사태를 사회변동에 있어서 불가피한 自然法則的 現象으로 봄으로써 그것이 비록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人間의 主體的이고 창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를 克服할 수 있는 可能性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批判의 여지가 있다. 集團事態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를 억압의 對象으로 보는 立場이나 이를 무조건 讚揚하고 고무하는 立場은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閉鎖的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集團事態에 合理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비관적인 眼目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만, 集團事態에 대한 일체의 評價를 부인하고 이를 單純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만 바라다 보는 客觀主義的 자세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立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問題는 특정한 集團事態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狀況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그러한 集團事態가 既存의 제도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도적 矛盾을 改善함으로써 集團事態의 原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提示해야 할 것이고, 制度的 矛盾이 既存制度의 경직성 때문에 도무지 順理的으로 개선되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效率的인 集團事態의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制度的 질서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또 집단사태의 原因이 普遍的으로 수긍될 수 있는 제도적 矛盾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極端主義的인 난동분자들의 소행으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한 集團事態를 진압할 수 있는 效果的인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集團事態에 관한 종래의 靜態的이고 固定的인 시각들에 비해서 이를 批判的으로 보는 省察的인 시각은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討論과 談話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 특정한 集團事態가 무조건 正當한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세 대신에 이를 서로 다르게 評價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특정한 集團事態가 어떻게 評價될 수 있는 것인지를 討論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評價的 合意를 구축하는 일야말로 집단사태에 對處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러운 姿勢라 아니할 수 없다.

각자는 社會的으로 定해진 직분에 따라서 事物을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人間은 자신의 立場을 超越해서 〈易地思之〉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또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과 言語를 통해서 是非非非를 가리는 過程에서 자신의 立場의 偏狹性을 극복하고 서로가 함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새로운 視覺으로 발전할 수 있는 自己省察的이고 自己超越的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集團事態를 보는 批判的 시각이란 바로 이러한 개방적이고 自己省察的이며 〈易地思之〉할 수 있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 社會의 治安을 책임지고 있는 警察의 立場에서 集團事態를 오로지 鎮壓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集團事態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의 立場에 서서 보는 融通性 있는 자세를 가져보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集團事態를 發展的으로 해소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近視眼的인 姿勢로서 집단사태를 더욱 더 惡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集團事態의 解消方案을 단순히 戰略的이고 技術的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대신에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學生運動과 勞使事態등을 위주로 하는 각종의 집단사태의 原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適切한 對應策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集團事態는 금년 6월 29日 〈노태우 선언〉을 前後해서 그 樣相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 以前까지의 集團事態는 주로 대학생들을 中心으로 한 것이었는데 비해서 6.29의 民主化 宣言을 기점으로 해서는 각 事業場을 中心으로 한 勞使紛爭이 그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9월로 접어들어서 大學들이 開學을 하게 되면 이러한 集團事態가 노학연계의 形態로 擴散될 것인지의 여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憂慮의 對象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今年 6月 29日 盧泰愚氏의 民主化宣言이 있기 전까지는 大學生들의 시위가 매우 과격한 性格을 띠었을뿐 아니라 全國的으로 擴散된 대학생들의 시위에 일부 市民들까지도 同調하는 樣相을 보임으로써 事態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듯했으나 이러한 事態는 6.29宣言으로 일단 그 氣勢가 꺾인 셈이다.

그러나 民主化 宣言 이후부터는 學生들의 시위 대신에 事業場에서의 勞動爭議가 새로운 樣態의 集團事態로 열화처럼 번져가고 있다가 그 대부분이 勞使協議 過程에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一部 大學生들의 集團事態의 原因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 時點에서 勞動爭議가 집단사태의 양상으로 번지게 된 원인을 分析한 후에, 이 두 種類의 集團事態의 連繫 可能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原因論的 分析이 이루어진 다음, 집단사태의 解消方案을 原因론적 해소 방안과 對應的 解消方案으로 나누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Ⅱ. 學生運動에 關한 既存 理論들

1960年代 이후 大學生들의 시위가 거의 모든 先進國들을 휩쓸었던 理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理論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 그 중 몇가지만을 살펴 본다면, <휴어>는 學生運動을 아버지와 舊世代들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盲目的이고, 무의식적인 외디프스적 敵愾心의 표현으로 說明하면서 學生運動 속에서의 暴力的 要素는 父殺(parricide)과 弑殺(regicide), 그리고 自殺(suicide)등의 欲求가 混合的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精神分析學的 理論은 크게 두가지 弱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이러한 외디프스적 反抗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今世紀 特有의 大學生運動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는 역사적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點이며, 둘째로 特定社會속에서 學生運動에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學生들이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더 강한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다는 證據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青年心理的 要因을 學生運動에 있어서의 充分條件이 아닌 여러가지의 必要充分條件中的 하나로 尙징해 볼 수는 있다.

이러한 心理學的 接近方法과는 달리, <브르제진스키>와 <벨>은 學生運動의 原因을 社會變動의 차원에서 說明하고 있다. 이들은 社會의 급격한 變動이 學生들의 欲求와 價値를 돌보지 않은채 급격히 進行되고 있는데 대한 反撥로 學生運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人本主義와 浪漫主義 精神이 강한 學生

1) Kenneth Keniston, "The student revolution," in <Readings in Sociology> edited by Edgar A. Schuler, et. al.,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71, p.549에서 再引用

다음으로는 이 時點에서 勞動爭議가 집단사태의 양상으로 번지게 된 원인을 分析한 후에, 이 두 種類의 集團事態의 連繫 可能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原因論的 分析이 이루어진 다음, 집단사태의 解消方案을 原因론적 해소 방안과 對應的 解消方案으로 나누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II. 學生運動에 關한 既存 理論들

1960年代 이후 大學生들의 시위가 거의 모든 先進國들을 휩쓸었던 理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理論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 그 중 몇가지만을 살펴 본다면, <휴어>는 學生運動을 아버지와 舊世代들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盲目的이고, 무의식적인 외디프스적 敵愾心의 표현으로 說明하면서 學生運動 속에서의 暴力的 要素는 父殺(parricide)과 弑殺(regicide), 그리고 自殺(suicide)등의 欲求가 混合的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精神分析學的 理論은 크게 두가지 弱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이러한 외디프스적 反抗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今世紀 특유의 大學生運動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는 역사적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點이며, 둘째로 特定社會속에서 學生運動에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學生들이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더 강한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다는 證據는 없다는 點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青年心理的 要因을 學生運動에 있어서의 充分條件이 아닌 여러가지의 必要充分條件中の 하나로 尙징해 볼 수는 있다.

이러한 心理學的 接近方法과는 달리, <브르제진스키>와 <벨>은 學生運動의 原因을 社會變動의 차원에서 說明하고 있다. 이들은 社會의 급격한 變動이 學生들의 欲求와 價値를 돌보지 않은채 급격히 進行되고 있는데 대한 反撥로 學生運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人本主義와 浪漫主義 精神이 강한 學生

1) Kenneth Keniston, "The student revolution," in <Readings in Sociology> edited by Edgar A. Schuler, et. al.,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71, p.549에서 再引用

들의 눈에는 急變하는 사회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手段的 合理主義, 機械主義的 賈值 및 物質的 發展 위주의 가치가 자기들의 價値觀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理論이 60年代 중반, 美國에서 일어났던 히피운동의 일단을 說明하는데는 妥當性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과연 얼마나 普遍的인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슬레이터>는 學生運動을 세대간의 文化的 葛藤으로 보는가 하민³⁾, <프렌드>와 <머스그르브> 등의 學者들은 이를 힘 있는 世代와 힘 없는 世代間의 勢力葛藤으로 보고 있다⁴⁾.

이러한 理論들도 나름대로의 妥當性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大學生들의 社會運動의 原因을 밝히는 기존 이론들 중에서는 <케니스턴>의 이론이 가장 注目된다. 그는 우선 先進 여러나라에서 대학생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後期 產業社會로 접어드는 過程에서 대학생들의 숫적인 增加를 뚜렷이 보인 때인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이전의 1次 產業이나 2次 산업위주의 社會와는 달리, 그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情報 產業社會에서는 대학 이상의 高等教育人口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副應해서 대학생 人口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의 注入式 教育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들에게 현재의 事物을 비판적으로 봄으로써 보다 더 좋은 것을 創造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創意性和 批判性을 위주로 하는 教育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그는 注目하고 있다.

이러한 批判教育을 받은 대학생 人口가 숫적으로 增加해서 하나의 뚜렷한 社會勢力으로 形成되면서부터 기존의 사회제도도 이들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고, 그들의 批判的 眼目에 용납될 수 없는 사회부조리가 제도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면 이러한 現實에 강한 拒否反應을 보이면서 집단사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2) Kenneth Keniston의 앞글에서 再引用

3) Philip Slater, <The Pursuit of Loneliness>, Boston, Mass.: Beacon Press, 1970). p.100 .

4) Otto Klintner, et.al., <Students, Values, and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5-6에서 再引用.

아직도 한 社會의 기능적 역할체제속으로 편입되지 못한 大學生들이 既存秩序의 강력한 批判勢力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케니스턴>의 理論은 한국적 현실을 理解하는데도 상당히 妥當性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先進社會에서는 학생운동이 잠잠해졌는데, 유독 韓國에서만 계속되고 있는 理由는 어떻게 說明될 수 있는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구사회에서 學生運動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 理由에 대한 이유는 아직 體系的으로 說明된 것이 없으나 이 問題에 관한 西歐學者들과의 토론에 의하면 기성세대와 대학생 世代間의 역사적 經驗의 이질성 여부가 가장 강력한 說明要因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先進社會의 경우, 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新世代와 기성세대간의 역사적 經驗이 매우 이질적인 狀態였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 이후로 당시의 既成世代들은 거의 황폐한 전후의 貧困狀態에서 60년대와 70년대의 번영을 스스로의 努力으로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서 오는 강한 긍지와 現實肯定的인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데 비해서 당시의 大學生들은 풍요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社會的 所望水準이 당시의 기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높았고, 보다 좋은 社會의 건설에 대해서도 既成世代들보다는 더 낙관적이었고 진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先進社會의 경우, 2次大戰의 폐허에서 번영을 자력으로 이룩한 既成世代들과 繁榮속에서 태어나서 보다 좋은 사회를 낙관시하는 젊은 世代들간의 역사적 經驗의 이질성 때문에 尖銳화된 구세대의 保守的 이데올로기와 신세대의 急進的 이데올로기의 對立과 갈등이 70년대의 過激한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데 비해서 8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러한 世代間의 역사적 經驗上的 이질성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60년대와 70년대에 學生運動을 하던 相當數의 엘리트들이 既成의 政治體制에 편입되어 여러가지 사회 부조리를 現實이 許容하는 한 척결하려고 努力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늘날의 政治人들은 그들의 풍부한 教育的 배경때문에 대학생들의 問題意識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受容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能力이 형성되어 있고, 政治體制도 보다 融通性 있게 학생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發展한 사실등을 80년대 이후 先進社會에서 학생운동이 잠잠해진 理由로 들 수가 있다.

Ⅲ. 韓國의 學生運動

韓國 學生運動의 특성을 그 역사의 長久性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⁵⁾.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조선조의 태학생들의 권당이나 유소, 상소 및 諫言制度의 저변을 흐르고 있었던 선비정신을 現代 學生運動의 뿌리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변천을 1) 1896년대의 開會期의 시동기; 2) 1910년대의 成長期; 3) 1920년대의 頻發期; 4) 1930년대의 潛伏期; 5) 해방직후의 激動期; 6) 1950년대의 沈滯期; 7) 1960년대의 噴出期; 그리고 8) 1970년대의 내연기등의 과정을 거쳐서 展開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⁶⁾.

現代 韓國 대학생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한국의 傳統史上, 기독교,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등 매우 다양하지만 現在의 學生運動은 대체로 반외세 민족주의형, 반독재민주주의형, 그리고 民衆的 社會主義型的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⁷⁾ 오랜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학생운동은 歷史意識과 저항정신이 강하며, 도덕주의적 성향 또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의 학생운동의 특성을 이와같이 韓國的 歷史의 흐름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오늘날의 既成世代와 신세대간의 역사적 經驗의 이질성의 차원에서도 說明될 수 있다. 세대간의 역사적 經驗의 異質性의 정도로 말한다면 오늘날 韓國社會처럼 그 차이가 심각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오늘날의 既成世代는 일제 통치하에서 나라없는 설움을 겪은 世代이며, 6.25 同族相殘의 비극을 체험한 世代이고, 60年代 이전의 뼈저린 가난을 經驗한 세대인 반면에, 오늘날의 大學生世代는 60년대 이후의 한국역사상 미증유의 물질적 풍요속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父母들의 대리만족욕구의 덕택으로 별이라도 팔 수 있을 정도의 강한 成就動機를 부여받고 엄청난 競爭意識속에서 자라온 세대이다.

5)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韓國學生運動의 研究〉 1987년 26面.

6) 유영익, 앞책, 27面.

7) 앞책, 29面.

韓國의 既成世代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도 남과 북이 각기 60 만 이상의 軍事力으로 대치하고 있는 準전시적 分斷狀態에서 안보를 최우선적 價値로 생각하고 있으며, 2,000 불 정도의 國民所得이 10,000 불 이상의 先進國 水準에 도달할 때까지는 효율적인 經濟成長政策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大學生들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獨裁的 共產主義와 맞싸우는 우리가 安保라는 이유때문에 自由民主主義의 실현을 유보당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하고, 또 公正한 분배가 수반되지 못하는 經濟成長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既成世代와 신세대간의 이러한 現實論과 理想論의 대립은 效率的인 대화를 통해서 合理的으로 타협되는 대신에 화염병과 최루탄의 대결이라는 극한적 樣相으로 계속 표출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世界的으로 과급되었던 大學生運動을 미국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항의라든지, <마르쿠제>의 急進左傾理論의 영향이라든지 하는 해석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觸發要因에 불과하고 이에 선행하는 구조적인 유발성이나 構造的 긴장에 해당하는 要件으로는 당시 新·舊世代間的 역사적 經驗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社會觀 내지는 政治理念의 차원에서 보수적 사상과 진보적 사상의 尖銳한 대립을 드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한 社會가 급격하게 변하는 전환기 社會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중의 하나는 世代間的 社會的 經驗의 異質性的 실화와 이에서 비롯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急進的 이데올로기간의 대립의 尖銳化 現象이라고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비약으로 이런 의미에서의 轉換期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숫적으로 비대해진, 批判的 사고의 訓練을 받은 大學生集團의 현실비판세력이 과격한 運動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면 이러한 社會構造的인 조건이 현재 韓國 大學生들의 의식속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大學生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現在 韓國의 학생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原因으로 민주화의 遲延과 진정한 民主主義의 비확립을 들고 있다. 2,000여명을 상대로 한 이 調查에서 전체의 63.9%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정권의 正當性 결여를 그 理由로 들고 있는 학생들은 17.1%, 군의 정치개입을 그 이

유로 들고 있는 學生들은 14%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는 學生運動에 직접 參與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간에 큰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⁸⁾. 이들 중 79.4%는 일반국민들의 意見이나 希望이 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84.3%가 社會正義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 중 65.2%는 불평등을 經濟成長 過程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58.8%는 우리나라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革命的인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⁹⁾.

오늘날의 政治的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이러한 批判的인 견해는 상당수의 기성세대들의 공감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解決이 革命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에 의해서 可能하며, 또 이러한 解決方式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구세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임은 분명하다. 일제 植民地 시절의 혹독한 經驗과 해방후 여러 政權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구세대들에게는 오늘날의 政治現實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歷史發展 과정이나 사회적 현실을 勘案해 볼 때에 이러한 현실들이 당장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기성인들의 政治的 현실을 보는 견해가 젊은 世代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現在 한국사회의 신·구세대간에 가장 심각한 見解의 차이를 들어내고 있는 문제는 바로 民族統一에 관한 일일 것이다. 기성세대는 민족통일의 이상이 現在의 國內外의 현실때문에 결코 쉽사리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아니라 祖國統一이 公산화가 되는 形態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信念이 굳은데 비해서 大學生들 중에는 현재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理由는 일부 權力層의 이기적인 보수적 성향과 주민국들의 방해공작 때문인데 이러한 障礙要因들은 민중적 勢力에 의해서 除去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심지어 共產化가 되더라도 統一이 되는 것이 現在와 같은 分斷狀態로 있는 것보다

8) 신명순, “1980년대 學生運動의 성격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韓國學生運動의 研究>, 78面.

9) 앞의 글.

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學生들도 있다. 신·구세대간의 統一問題에 關한 이와같은 見解의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悲劇을 통해서 北韓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직접 體驗했느냐의 여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80年代 초반을 前後하여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운동성향이 질적으로 中대한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1970年代까지의 학생운동은 낭만주의적인 아마추어리즘으로서 그때 그때의 政治的인 문제에 應해서 일과성직으로 일어난 즉흥적이고 비조직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80年代부터의 학생운동은 理念性和 組織性, 그리고 전문성과 과격성이 현저하게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學生運動의 배후에는 직업적 專門家들이 계속적으로 地下에서 대중운동의 분위기를 助成하고 있을 뿐 아니라 運動方向을 조종하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러한 核心圈 학생들 중에는 이미 당국에 의해서 法的인 처벌을 받은 經驗이 있는 자들이 많으며 스스로를 現체제 속에서는 成功的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급진 좌경적인 思想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一部 核心圈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다수의 대학생들을 效果的으로 集團事態로 動員해 올 수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데모에 가담하는 학생들의 수는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서 상당히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社會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한 비난의 對象이 되는 사건이 촉발요인으로 作用할 때에는 이를 계기로 전개되는 集團事態에 參加하는 학생들의 수가 增加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로서 미루어 본다면 大部分의 학생들은 核心圈者들의 급진좌경사상에 동조해서 데모에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現實이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參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民主化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좌경성향이 강한 일부 核心勢力들의 데모에 동조하는 양상을 띠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수의 民主化 勢力과 소수의 좌경화 세력이 연합전선을 成功的으로 펼 때에는 大規模의 학생들이 시위에 參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로서 미루어 볼 때에 現在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가장 큰 原因은 政治的인 次

元에서 민주화가 實現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겠고, 이러한 風土속에서 고질화된 학생운동의 環境이 일부 학생들의 급진적 좌경사상으로 發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民主化運動이 왜 좌경사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그 가장 큰 理由는 젊은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장 理論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주고 또 가장 분명한 해답을 提示해주는 것이 좌경사상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은 이상주의적인 視覺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청년기의 社會的 문제의식에 가장 親化力이 강한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V. 勤勞者들의 集團事態

6.29 宣言 이후 우리나라 集團事態의 양상 중에는 重大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學生運動 위주의 集團事態 못지않게 勤勞者들에 의한 集團事態가 勞動爭議의 형태로 展開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勞動爭議 발생건수는 1983 年에 113 件, 85 年에는 265 件, 86 年에는 276 件 정도로 集計되어오고 있었는데, 6.29 宣言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불과 두달 사이에 2千餘件의 勞動爭議가 뚝이 터진 붓물처럼 全國적으로 일어났다. 그중 일부의 勞動爭議는 집단 暴力事態로까지 전개되어 社會적으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大部分의 輿論은 이러한 集團事態가 과거 20여년간의 값싼 勞動力 위주의 經濟成長이 GNP 2,000 弗의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예상했던 당연한 과정적 현상으로 보고 이 問題는 勞動三權을 법적인 次元에서 보호해줌으로써 여태까지 유보되어 왔던 勤勞者들의 權益을 실세화 해주고 또 政府가 使用主들에게 올바른 노사관을 정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雙래의 수직적 노사관계를 平等的 關係가 되도록 노력하면 쉽게 解決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을학기가 시작되어 大學生運動이 재개되면 노학연계의 形態로 集團事態가 발전하여 우리나라 民主化過程에 매우 불안한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운동과 勞動運動의 關係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의 예로보면 학생운동의 가장 큰 要求는 정치적 自由와

元에서 민주화가 實現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겠고, 이러한 風土속에서 고질화된 학생운동의 環境이 일부 학생들의 급진적 좌경사상으로 發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民主化運動이 왜 좌경사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그 가장 큰 理由는 젊은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장 理論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주고 또 가장 분명한 해답을 提示해주는 것이 좌경사상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은 이상주의적인 視覺에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청년기의 社會的 문제의식에 가장 親化力이 강한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V. 勤勞者들의 集團事態

6.29 宣言 이후 우리나라 集團事態의 양상 중에는 重大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學生運動 위주의 集團事態 못지않게 勤勞者들에 의한 集團事態가 勞動爭議의 형태로 展開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勞動爭議 발생건수는 1983 年에 113 件, 85 年에는 265 件, 86 年에는 276 件 정도로 集計되어오고 있었는데, 6.29 宣言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불과 두달 사이에 2千餘件의 勞動爭議가 뚝이 터진 붓물처럼 全國적으로 일어났다. 그중 일부의 勞動爭議는 집단 暴力事態로까지 전개되어 社會적으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大部分의 輿論은 이러한 集團事態가 과거 20여년간의 값싼 勞動力 위주의 經濟成長이 GNP 2,000 弗의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예상했던 당연한 과정적 현상으로 보고 이 問題는 勞動三權을 법적인 次元에서 보호해줌으로써 여태까지 유보되어 왔던 勤勞者들의 權益을 실세화 해주고 또 政府가 使用主들에게 올바른 노사관을 정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雙래의 수직적 노사관계를 平等的 關係가 되도록 노력하면 쉽게 解決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을학기가 시작되어 大學生運動이 재개되면 노학연계의 形態로 集團事態가 발전하여 우리나라 民主化過程에 매우 불안한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운동과 勞動運動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의 예로보면 학생운동의 가장 큰 要求는 정치적 自由와

經濟的 평등인데, 이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農村問題와 노동문제를 가장 큰 공격의 對象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農村人口는 그 대부분이 非組織的으로 산재해 있을 뿐아니라 그들을 組織化하고 의식화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4半世紀를 통해서 계속 增加한 都市의 노동인구는 運動圈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大衆動員의 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勞動運動의 비숙성 때문에 노동운동의 소극이나 懸念이 아마추어 대학생들의 意識水準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노동운동이 學生運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갈 맑스의 豫言과는 달리 선진 資本主義 國家들이 공산주의 革命을 겪지 않고 계속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勞動運動이 노동민과 革新政黨들의 政治活動 등을 통해서 제도권 속에서 合法的으로 이루어지고 勤勞者들의 집단적인 要求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效果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값싼 勞動力을 위주로 직원한 國際競争 속에서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勤勞者들의 利益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이들의 權利가 집단적으로 主張될 수 있는 制度的 통로가 원활히 作用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蓄積되어온 이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6.29 이후의 집단사태의 形態로 분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一般論的으로 볼 때에, 이상주의적인 학생운동에 비해서 勞動運動은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또 학생운동의 理念과 주장이 다분히 추상적인데 비해서 노동운동의 目標은 구체적이고 재현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制度圈 속에서 제대로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運動을 주도하는 勢力들의 의식수준이나 모든 面에서의 力量이 학생운동 세력의 能力水準을 앞지르기 때문에 학생운동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운동이 制度圈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운동은 體制 도진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런 狀況속에서는 노학연계는 양 운동간의 대등한 提携의 形態로 이루어질 可能性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勞動運動이 그 可能性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狀態에서는 대학생들의 影響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크며 이런 段階에서는 勤勞者들은 나무와 같고 학생들은 불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나무가

불이 타기에 용도록 말라 있으면 약한 불이 닿아도 쉽게 불에 당길 수 있는가 하면 나무가 여간 물기가 있어도 강한 불에 계속 닿게 되면 불이 당길 수도 있는 것과 같이 勤勞者들의 불만이 팽배하거나 학생들의 意識化 活動이 강하거나 하면 노학연계의 集團事態가 발발할 可能性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IV. 集團事態의 原因論的 解消方案

集團事態의 해소방안으로는 그 原因論的 해소방안과 對應的 해소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原因論的 해소방안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集團事態가 발발할 수 있는 社會構造的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사태를 事前에 예방하는 方案을 말하며, 對應的 해소방안이란 이미 일어난 集團事態를 해소시키는 方案을 말한다. 따라서 집단사태의 原因論的 해소는 그 사회의 정치제도의 效率性 여하에 달려있는 問題라면 對應的 해소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警察의 주된 임무라 하겠다. 現代社會에 들어서면서 정치제도가 종교와 같은 傳統的인 社會제도와 분리되면서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정당성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각종의 社會갈등이 尖銳化하고 그러한 갈등이 전부 정치제도 속에서 소화되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 선진사회에서는 대부분의 社會的 갈등이 매우 效率的으로 정치제도 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社會에서는 經濟發展과 정치발전, 그리고 기타의 사회발전은 물론이고 制度的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意識水準도 향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社會制度和 社會의식간에도 어느 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社會全體가 비교적 평온한 狀態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轉換期的 현상으로 사회 각부분의 발전에 심각한 괴리현상을 들어내고 있으며 이로인한 社會的 불안도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도 韓國의 경우, 특히 심한 것은 經濟發展과 정치발전간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괴리현상이라 하겠다. 經濟發展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意識水準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社會 각 집단간의 이해적 對立이 尖銳化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제도가 이러한 變化를 민감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이 타기에 용도록 말라 있으면 약한 불이 닿아도 쉽게 불에 당길 수 있는가 하면 나무가 여간 물기가 있어도 강한 불에 계속 닿게 되면 불이 당길 수도 있는 것과 같이 勤勞者들의 불만이 팽배하거나 학생들의 意識化 活動이 강하거나 하면 노학연계의 集團事態가 발발할 可能性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IV. 集團事態의 原因論的 解消方案

集團事態의 해소방안으로는 그 原因論的 해소방안과 對應的 해소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原因論的 해소방안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集團事態가 발발할 수 있는 社會構造的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사태를 事前에 예방하는 方案을 말하며, 對應的 해소방안이란 이미 일어난 集團事態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따라서 집단사태의 原因論的 해소는 그 사회의 정치제도의 效率性 여하에 달려있는 問題라면 對應的 해소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警察의 주된 임무라 하겠다. 現代社會에 들어서면서 정치제도가 종교와 같은 傳統的인 사회제도와 분리되면서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정당성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각종의 사회갈등이 尖銳化하고 그러한 갈등이 전부 정치제도 속에서 소화되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 선진사회에서는 대부분의 社會的 갈등이 매우 效率的으로 정치제도 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社會에서는 經濟發展과 정치발전, 그리고 기타의 사회발전은 물론이고 制度的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意識水準도 향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社會制度和 社會의식간에도 어느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社會全體가 비교적 평온한 狀態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轉換期的 현상으로 사회 각부분의 발전에 심각한 괴리현상을 들어내고 있으며 이로인한 社會的 불안도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도 韓國의 경우, 특히 심한 것은 經濟發展과 정치발전간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괴리현상이라 하겠다. 經濟發展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意識水準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社會 각 집단간의 이해적 對立이 尖銳化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제도가 이러한 變化를 민감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6.29宣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民主化가 本格的으로 推進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事情으로 여태까지 유보되어 온 여러가지 政治的 自由가 충분히 신장되면 사회적 갈등이 정치제도를 통해서 보다 效率的으로 소화될 수 있을 것이며 社會的 불만이 集團事態로 발전할 危險水位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社會的 불만과 갈등이 政治制度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個人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규합되고 그 불만의 性格과 原因등이 組織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理解되고 整理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요인이 조직을 통해서 집결되고 현재화될 필요가 있다. 불만의 組織化가 갖는 중요한 機能中의 하나는 이러한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非社會的이고 개인적인 불만요인들은 除去되고 개인들이 느끼는 각종의 불만들 중에서 그 原因이 社會的인 것들만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組織化된 社會的 불만이 정치제도를 통해서 수렴되고 해소될 수 있는 窓口가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다른 集團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의 합리적인 해소야말로 政治制度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 하겠다. 社會的 불만이 이와같이 政治制度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的 불만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言論의 自由 및 비판의 자유가 確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는 結社의 자유도 保障되어야 한다.

個人的 次元의 불만들이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와같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고 政治制度 속으로 편입되어 處理되지 못한채 방치되거나 抑壓되면 이야말로 集團事態로 이어지는 구조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흔히들 현실적인 이유로 社會的 불만의 자유로운 분출이 억압되고 規制되는 경우가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러한 처사는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狀態로 밀고 가는 격이 된다. 민심과 여론은 흐르는 물처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 自然스러운 흐름을 人爲的으로 막아버리면 독안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물의 높이와 독의 높이가 繼續 競爭을 하면 堤防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더라도 그 독이 안고 있는 물의 壓力을 이기지 못하고 結局은 독이 터지거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事實이다.

이러한 비유의 妥當性은 물론 民心과 輿論이 원천적으로 統制되고 조작되는 전체주의 社會에서는 그대로 適用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自律性이 概念的으로 부정되고 사상적 통제가 嚴格한 일부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삶의 客觀的인 조건이 아무리 不利하더라도 이에 관한 不滿을 느끼기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思想的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반자연적인 이데올로기적 統制의 수명이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다는 事實을 우리는 歷史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다.

6.29 宣言 以後 막혔던 붓물처럼 터져나온 勞使紛糾는 勞使 雙方의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對話와 政府 및 一般 輿論의 공정한 개입으로 다시 잠잠해 질 기미가 보여서 다행이다. 勞動三權이 현실화되는 方向으로 勞動法이 개정되고 있기때문에 勤勞者들에 의해 集團事態의 危險은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이 더 진행되면 勤勞者들의 수도 계속 增加할 것이고 그들의 意識水準과 期待水準도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들의 集團的인 불만이 合理的으로 처리될 수 있는 法的인 장치뿐 아니라 政治的인 장치까지도 制度化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레타리아 革命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北韓 共產主義와 概念的으로나 군사적으로 침여한 對立을 해오고 있는 우리로서는 숫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產業社會 속의 勤勞者들의 權益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平和的 南北統一의 승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勞動法의 개정을 통해서 그들의 權益이 保護되는 것 못지 않게 그들의 集團的인 利益과 주장이 政治的으로도 效果的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改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의 主張이 議會속에서 충분히 대변되고 그 타당성이 合理的인 對話와 討論을 위해서 가늠된 후에 政策的으로 수용된다면 이들의 불만이 制度的인 틈을 벗어나는 集團事態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勤勞者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 비해서 大學生들의 問題意識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一般的이기 때문에 大學生들의 問題를 제도권속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는 勤勞者 問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勤勞者들의 문제는 窮極的으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政治制度를 통해서 解決될 성질의 것이지만 大學生들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教育에 관한 問題이기 때문에 교실이라고 하는 教

育的 雰圍氣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大學生運動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教育的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 첫째로는 대학에서의 학문과 思想의 自由 및 討論의 自由가 確保되어야 한다. 대학 강의실에서의 討論의 自由는 그것이 강의실 밖에서의 행동을 충동질하는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國會안에서의 討論의 自由보다는 더 폭넓고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南과 北이 理念的으로 첨예한 對立을 이루고 있는 형편에서 대학에서의 思想과 學問의 자유도 안보적인 理由로 심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自由롭게 論議되고 비판될 수가 없었다. 오늘날 大學生 運動과 關聯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좌경사상 및 공산주의 사상은 討論의 自由만 주어진다면 講義室 안에서 충분히 克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의 克服은 오로지 그것을 否定할 수 있는 자유만이 주어지고 그러한 사상의 좋은 면은 절연 言及될 수 없는 狀況에서는 기대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나 또 오늘날의 歷史的 經驗으로 볼 때에 공산주의 사상은 基本的인 차원에서 그 妥當性이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分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共產主義 사상 속에서 취할 점이 전혀 없거나 오늘날의 資本主義 체제가 아무런 비판의 여지도 없이 완벽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진정한 批判精神은 비판의 對象이 되는 대상의 나쁜 점만이 아니라 좋은 점까지도 자유롭게 論議될 수 있을때라야 비로소 可能的인 것이다. 社會的 現實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不平等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左傾思想의 근원을 基督教과 佛敎등의 종교적 사상에서 찾으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서 問題視 되고 있는 急進 左傾思想의 역사적 뿌리는 깊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이상주의적인 傾向이 強하게 나타나는 靑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現實을 무조건 부정하기만 하는 청년기의 추상적인 사고와 함께 그들이 나이가 들면 社會生活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克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思想이 자연스럽게 克服은 되어도 결코 抑壓的인 방법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상의 가장 큰 問題點은 그 非現實性和 독단성에 있기 때문에 歷史的이고 現實的인 經驗이야말로 이러한 사상의 문제를 克服하는데 가장 效果的인 資料이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한 사상을 개방적으로 受容

하리고만 하면 이러한 사상은 현실 속에 쉽게 용해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急進左傾思想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이상주의적인 現實批判意識이 갖고 있는 이러한 非現實性과 허구성은 現實論理에 의해서 가장 效果的으로 克服될 성질의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論理는 理想論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점들을 개방적으로 受容하면서 展開되어야지 이상론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해서는 이상론을 이기기 힘들 것이다. 問題는 一部 大學生들이 주장하는 말들의 타당성이 合理的으로 論議되고 克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急進左傾思想을 대하는 우리의 現實과 기성인들의 자세는 여유가 있고 개방적이기 보다는 閉鎖的인 面이 強하다. 일부 대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는 그들의 언로가 막혀서 非合理的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行動指向的인 性向은 그들의 생각이 自由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만큼 緩和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大學生 運動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教育的으로 克服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의 조건은 교권의 確立이고 이를 위한 大學의 自律性 確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최고 통치권에 위계적으로 編入되고 있는 權威主義的인 官僚體制속에서도 대학의 自律性이 確保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대학의 自律性이 確保되지 못한 狀況에서 사상과 학문의 自由가 기대되기도 어려운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우리 大學教育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核心運動圈 학생들이 교수들을 어용시하고 적대시한다는데 있다. 學生들이 이와 같이 教授들의 말을 不信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아무런 教育的인 效果도 기대될 수가 없다. 교수와 학생간의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교권의 確立에 있고 이러한 교권의 確立은 大學의 自律性 및 이에서 비롯되는 思想과 학문의 자유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重要한 요건은 대학의 經濟的인 狀況이다. 특히 80年代 以後로 갑자기 늘어난 大學生人口 때문에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질적인 차원에서 큰 後退를 하고 있다. 일정한 공간에 너무 많은 學生들이 收容되어 있기 때문에 大學이 合理的이고 사색적인 氛圍氣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으며, 또 教授와 학생간의 관계가 人格的인 만남이 거의 不可能해져가고 있다. 또 교수들은 여러가지 일로 쫓기고 있기 때문에 精神的인 여유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獨創的인 학설을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른나라 學者들의 理論들만 소개하는데 머물게 되고

이러한 教授들이 학생들의 눈에는 權威롭게 보이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대학은 한 나라의 文化의 꽃이다. 先進國의 대학들은 그 나라의 經濟的 부와 文化적 질이 대학의 분위기를 통해서 꽃피고 있다. 이러한 文化的 空間 속에서 젊은이들은 現在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다른 公共施設이나 企業體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生活環境에 비해서 대학의 분위기는 너무 초라하고 萎縮되어 있다. 이렇게 文化적으로나 經濟적으로 萎縮된 분위기 속에서 大學生들의 기상을 곳곳히 뻗어나가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의 生活霧圍氣 속에서도 그들의 理想과 現實이 너무나 엄청난 거리로 그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健全한 대학문화의 育成이야말로 大學生들의 意識이 바르게 뻗어갈 때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에 充分한 經濟的인 投資가 필요한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또 大學生活 속에서 심한 相對的 貧困意識을 느끼게 되는 불우한 가정 出身의 대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됨으로써 이들에게 비록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本人의 能力만 있으면 現 體制 속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確信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이 적어도 이상의 몇가지 要件만 갖추게 된다면, 그리고 얼마간의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는 時間的 餘裕만 주어진다면 大學生들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教育的으로 충분히 克服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重要한 단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의 政治가 모든 批判을 肯定的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民主的으로 성숙한 狀態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VI. 集團事態의 對應的 解消方案

現代社會와 같이 現世적인 價値觀이 다양하게 表출되면서 政治的 正當性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集團事態를 원인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政策이 政治的 次元에서 완벽하게 그 實效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集團事態는 民主社會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社會的 活性要因으로 肯定視될 수도 있다. 여하튼 非制度的 집단사태가 일단 일어나면 社會秩序的인 차원에서 治安當局은 이 問題에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적인 對應策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問題는 그야말로 高度의 治安技術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것

이러한 教授들이 학생들의 눈에는 權威롭게 보이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대학은 한 나라의 文化의 꽃이다. 先進國의 대학들은 그 나라의 經濟的 부와 문화적 질이 대학의 분위기를 통해서 꽃피고 있다. 이러한 文化的 空間 속에서 젊은이들은 現在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다른 公共施設이나 企業體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生活環境에 비해서 대학의 분위기는 너무 초라하고 萎縮되어 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經濟적으로 萎縮된 분위기 속에서 大學生들의 기상을 곳곳히 뻗어나가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의 生活霧圍氣 속에서도 그들의 理想과 現實이 너무나 엄청난 거리로 그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健全한 대학문화의 育成이야말로 大學生들의 意識이 바르게 뻗어갈 때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에 充分한 經濟的인 投資가 필요한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또 大學生活 속에서 심한 相對的 貧困意識을 느끼게 되는 불우한 가정 出身의 대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됨으로써 이들에게 비록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本人의 能力만 있으면 現 體制 속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確信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이 적어도 이상의 몇가지 要件만 갖추게 된다면, 그리고 얼마간의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는 時間的 餘裕만 주어진다면 大學生들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教育的으로 충분히 克服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重要한 단서가 붙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의 政治가 모든 批判을 肯定的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民主的으로 성숙한 狀態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VI. 集團事態의 對應的 解消方案

現代社會와 같이 現世적인 價値觀이 다양하게 表출되면서 政治的 正當性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集團事態를 원인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政策이 政治的 次元에서 완벽하게 그 實效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集團事態는 民主社會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社會的 活性要因으로 肯定視될 수도 있다. 여하튼 非制度的 집단사태가 일단 일어나면 社會秩序的인 차원에서 治安當局은 이 問題에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적인 對應策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問題는 그야말로 高度의 治安技術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것

이기 때문에 具體的인 提案은 필자의 能力밖의 문제이다. 그러나 집단사태의 對應策과 關係해서 지극히 一般論的인 차원에서 몇가지 論議는 可能하다.

첫째로 原因論的인 해소방안에 비해서 對應的 解消方案은 집단사태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危險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事實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集團事態의 현장에 警察力이 投入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이 지나치게 거칠면 이는 바로 集團事態를 더 크게 擴散시키는 자극요인으로 作用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事實이다. 단호하고 強力한 對處方案은 사태를 당장 鎮壓하는데는 效果의 일런지 몰라도 이 不作用이 이후의 事態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은 우리 社會가 經驗해 온 事實이다. 이미 일어난 집단사태를 治安的인 수단으로 반분색원한다는 것은 언복구어식의 잘못된 생각이다. 治安的 對處方案은 어디까지나 集團事態의 임시적 對應策의 선을 넘을 수가 없다.

집단사태를 鎮壓하기 위해서 動員되는 警察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군중과 警察 사이에 적대적 感情이 고조되는 일이다. 群衆暴動에 投入되는 警察은 흔히들 暴力的인 시위군중들에 의해서 亂暴한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고, 공격을 당하면 警察도 흥분하여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 集團事態를 뒤에서 은근히 부채질하는 반체제적인 不純勢力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事態로 示威가 발전하도록 바랄 것이다. 직들과 싸워야 하는 軍隊들은 戰鬥에 인해서 용감히 싸우는 過程에서는 敵을 미워하는 적개심이 그들의 사기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때문에 지휘관들은 흔히 군대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사병들의 적개심을 適切히 자극하고 誘發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市民들로 구성된 示威群衆들을 대하는 警察의 態度에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感情이 조금이라도 介入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集團示威를 鎮壓하는 催淚彈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直接的인 충돌을 피하면서 데모대를 解散하는 방법을 擇하고 있지만, 한때는 행동대원들이 動員되어 示威꾼들과 꼭 같은 방법으로 險惡한 접전을 벌인 일도 있었다. 私服警察들의 그러한 亂暴한 행동들이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示威 속으로 끌어들이었는지 모른다.

우리들은 6.29宣言 以後, 學園街에서 催淚彈과 火焰瓶의 접전이 完全히 사라지게 될 것을 希望했었는데, 개학이 되면서부터 催淚彈은 다시 터지고 있다. 6.29. 宣言 以後에는 소수의 학생들이 다소 過激한 示威를 해도 주위 사람들의 冷淡하고

비관적인 반응으로 그러한 過激示威가 자연히 消滅될 가능성도 있는데 警察들이 催淚彈을 너무 성급하게 쏘아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을 했던 勞使紛爭이 대화를 통해서 거의 解消되어가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일부 過激示威學生들이 여간 강하게 불을 질러도 市民들의 반응은 매우 冷淡하게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당겨서 대중시위로 끌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警察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면 시민들은 그러한 警察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고 結果的으로는 시위대들에게 동정적으로 되어 시위대열에 同參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끝으로 集團事態 關聯者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結果가 초래하는 問題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개가 스스로를 確信犯으로 생각하기때문에 그들의 行爲에 대해서 거의 罪責感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중판구는 處罰過程을 통해서 더 강한 鬪爭信念을 갖게 된다. 따라서 集團事態를 처벌위주로 처리하게 되면 結果的으로 집단사태를 주도할 專門家를 養成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일단 처벌의 對象이 되었던 者들에게 관용을 베풀게되면 法的인 기강이 해이해지게 된다. 특히 學生運動과 關聯되어 제적된 학생들의 경우, 處罰과 구제의 惡循環이 되풀이 되는 모순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現象이 結果的으로는 학생운동의 성격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集團事態를 警察의 水準에서 대응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사태의 解消는 政治的인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해소되도록 努力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集團事態를 무조건 否定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制度的 運營에 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現象으로 보고 그 原因을 밝혀보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問題의 性格이 밝혀지면 이를 政治的으로 解決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民主化 運動을 통해서 새로운 歷史的 國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政府에서는 집단사태를 무조건 治安的인 차원에서 解消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의의 소재를 把握하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하는 자세도 아울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Collective Behavior in Transitional Society

Byong-Je J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s of mass phenomena or collective behavior in modern Korean societ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transitional society in the sense that it has undergone a tremendous social change during the past decades. This paper consists of 6 parts. In the first par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perspectives on collective behavior. Conservative perspective of Gustav LeBon, E.A. Ross, Sigmund Freud and Georg Simmel has strongly negativistic view on collective behavior. On the other hand, radical perspective of Marx-Engels and other Marxists and Alaine Trainne emphasizes the positive aspect of collective behavior by seeing it as a necessary vehicle of social development. Contrary to these value laden perspective, Max Weber and Esra Park tried to explain it in objectivistic and naturalistic manner. But this scientific and deterministic approach tends to discourage the active and critical role of human being in controlling possible destructive elements in the collective behavior. The critical perspective on collective behavior advocated in this paper does not have fixed, closed and static ideological attitude on collective behavior. It tends to rationally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behavior and existing social institution. If collective behavior is a natural result of the malfunction of the present social institutions, the latter is subject to correction. On the other hand, if a collective behavior is understood as a transitory phenomenon by a few social deviants it is subject to effective control. This critical perspective emphasizes the role of critical human reason in constructively responding to the phenomena of collective behavior.

Most of the collective behavior in modern Korean society has been burst out in the form of student movement. In the 1960s, radical student movements were wide spread throughout the world.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 Yonsei University

examines many of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student movement. These student movements have been disappeared in the other countries by the beginning of 1980s. Many of the theories which try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student movements could not successfully account for the reason why these movement suddenly disappeared by the beginning of the present decade. If we explain the cause of the student movement in terms of generational gap between the present conservative ruling generation who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economic prosperity which they achieved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War II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born in the age of material abundance and harbor higher level of social aspiration, the reason of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reduced generational gap.

In the third section, the nature of Korean student movements has been examined.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the history of the Korean student movement is very long and most of the active students have very strong sense of history in connection with their activities. When we see the cause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context of the generational gap,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old generation and the radical young generation has come to be strong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experiences between the two.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most of the students are critical toward non-democratic situa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y think that the main cause of the student movements in Korea is fo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However, many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ure of student movements in Korea. Previously, most of the demonstrations were spontaneous and transitory in nature and the main slogan was to protest against non-democratic political situation. But after the beginning of the present decade, many of the demonstrations have been lead by some standing organizations the members of which are supposed to have radical thoughts. The slogans have been radicalized, and they are not only protesting against the present regime, but also against the present capitalistic social system. Even though most of the college students do not go this far, they are easily instigated and mobilized by the radical students into mass movements whenever there occur

some events contrary to the spirit of democracy.

One of the significant changes in mass phenomena occurred in Korea after the proclamation of democratization by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Mr. Ro Tae-woo on 29th of June this year. Previously, most of the demonstrations were lead by the college students. But after the proclamation, many of the labor disputes have taken the form of wild mass demonstration. In 1983, only 113 cases of labor disputes were resported; 265 cases were reported in 1985, and 276 cases in 1986. But within the two months after the proclamation, more than 2000 cases of labor disputes burst out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Many of the observers worried that the situation will become very serious if this kind of labor movement is linked with student. demonstrations after the beginning of the fall semester. But, fortunately enough, most of the labor disputes have been successfully settled down between the two parties through reasonable negotiation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ature between the labor movement and the student movement. The issues in the labcr movement are real and concrete and relatively easy to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whereas that of the student movement tend to be more abstract and general. When the industrial conflicts are reasonably resolved, or the labor movement is protected and encouraged within the institution,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movement is instigated by the activities of the radical students into a mass movement. But the chance was high thus far in Korea because the ligitimate claims of the workers were not heard of within the institution.

Two differnt approaches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in order to cope with the mass phenomena. The first is a causalistic approach and the other is a symptomatic approach. In part five of this paper, causalistic approach to the collective behavior is discussed. In principle, chances of occurring collective behavior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y widening the institutional channel to resolve social frustrations of various kind. For this purpose,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association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social frustrations can be crystallized to a form to be adequately dealt with in the political forum. If labor movement is institutionalized, it will be effectively kept out from destructive collective behavior. In the case of student demon-

stration, it should be dealt with through educational channel. For the purpos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the authority of the professors should be respected.

In the last part of the paper, the symptomatic approach in which police should play a key role is discussed. Compared with the causalistic approach through political channel, the symptomatic approach tend to accompany serious negative effects if police forces neglect some safety principles in the cause of its action. First and foremost, the police in action should not show any sign of hostility against the demonstrators. Otherwise, the police in action will instigate the neutral by-standers into the stream of wild demonstration, and the situation will be aggravated to a dangerous level. And punitive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llective behavior tend to strengthen the core radical camp of the movement and in the long run the approach will bring the negative effects contrary to its cause.

In conclusion, the causalistic approach is much secure than the symptomatic approach, and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collective behavior in a critical perspective to learn if the movement correctly indicates some malfunctioning of the institution.

Thanks you

